

# 청년들 '따순 주먹밥' 먹고 어깨 펴세요

### 남구, 백운동 청년와락 2층 등 3곳에 무료 쉼터 문 열어 청년 고독사 예방 위해 마련...39세 이하 1인 가구 대상

“혼자 살다보니 끼니 챙기기 어려운데 위안이 됩니다. 비슷한 처지의 또래 청년들이 모여앉아요.”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서 지취 중인 대학생 편보(21)씨는 17일 오전 11시 백운2동 청년와락 2층에 마련된 '청년 따순 주먹밥' 쉼터를 찾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쉼터가 문을 연 바로 다음날 이곳을 찾은 그는 익숙한 듯 손에 위생장갑을 끼고 비치된 김에 밥과 참치를 올려 주먹밥을 만들어 입에 털어넣었다.

따순 주먹밥 쉼터는 전날부터 백운 2동(1호점) 뿐 아니라 월산동 달피커뮤니티센터(2호점) 봉선동 인애복지관 별관(3호점)에 각각 문을 열고 '나 혼자사는' 청년을 맞고 있다.

남구는 청년 1인 가구의 고립과 식생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먹밥 쉼터 운영을 기획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남구에 홀로 사는 청년이면 언제든 찾아와 무료로 한 끼 식사를 편히 즐길 수 있도록 꾸렸다. 즉석밥과 참치캔, 김, 단무지, 컵라면(육개장·튀김우동·짜파게티) 등을 갖춰

스스로 주먹밥을 만들어 먹거나 컵라면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편씨는 “혼자 살다보니 밥을 챙겨먹기 귀찮아 하루 한 끼로 때우는 날도 많은데, 따순 주먹밥 쉼터를 알게 돼 찾아왔다”면서 “집 밖에 자주 나오고 싶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따순 주먹밥'은 5·18민주화운동의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다. 1980년 당시 시민들이 서로에게 주먹밥을 나누며 연대와 연민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회적으로 단절된 청년들에게 남구가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다.

남구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으로 쉼터 1곳 당 1000만원씩 배정했다. 남구 내 3개 복지관이 운영을 맡았고 4호점도 모색하고 있다. 쉼터마다 자활센터를 통해 고용한 근로자가 상주하며 안내하면서 위기 청년 발굴 및 복지 연계 방안도 모색한다.

이용 청년은 식사를 마친 뒤 추후 복지 상담 및 서비스연계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식사·주거·의료·일자리·기타)을 쪽지에 적어 내게 된다.

남구는 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에

게 적극 알리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쉼터가 단순한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고립 위기에 놓인 청년들을 발굴하고 복지와 연결하는 '접점 공간'으로 이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운영한 지 이틀 동안 3곳을 찾은 청년은 고작 7명이 전부였다. 그나마 모두 1호점만 이용한 청년들로, 청년층이 찾기 힘든 위치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만하다.

2곳은 퇴근 시간에 맞춰 오후 6시에 문을 닫아보니 청년 시간 위주로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남구는 1호점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2·3호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기로 했다. 2호점은 토요일에도 문을 열고 청년을 기다린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전국 연령대별 고독사 중 자살비중 통계(2023년)에 따르면 20대 고독사중 59.5%, 30대 고독사중 43.4%가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 쉼터 관계자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먹밥을 나눠준 5.18 정신처럼 오늘날 고립된 청년들을 지역 사회가 보듬어 주길 바란다”며 “이곳이 단순한 밥집이 아니라, 마음 놓고 쉬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ja@kwangju.co.kr



17일 오전 광주시 남구 백운2동 청년와락 2층에 '청년 따순 주먹밥' 쉼터가 마련돼 있다.

# 45주년 5·18 전야제 '1박 2일' 열린다

### 행사위, 텐트 500개 설치 '민주주의 대축제'로

45주년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행사가 1박 2일에 걸쳐 펼쳐진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간담회를 열고 5·18 45주년 행사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행사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민주주의 대축제'를 주제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포함한 민주주의의 공고화 모색 등을 목표로 열린다.

특히 기존 오후 10시까지 끝나던 기념행사를 1박 2일로 확장해 이튿날 밤 9시까지 행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17일 오후 1시부터 금남로 곳곳에서 시민단체가 펼쳐지며, 오후 4시부터는 5·18 당시 '민족민주화

성취'를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을 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전야제는 17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하며 '환영의 대축제', '민주주의 대축제', '빛의 대축제' 등 주제에 따라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풍물패 공연 '오월길맞이'부터 수만 명 시민이 행진하는 '금남로 입성대회', 플래시몹과 오월 어머니들의 공연 등을 볼 수 있는 '광주공동체 환영공연'으로 이어진다.

2부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씨름과 승화를 주제로 한 공연 '진혼'으로 막을 올린다. 특별 제작 뮤지컬 '시간의 노래'와 합동 공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월 민주선언' 등으로 채워진다.

끝으로 3부는 스키퀘이커스, 퍼포밍 스피치, 백

금령과 촛불밴드, 이은미 등의 공연을 볼 수 있다.

밤 9시 30분부터는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집단 놀이 '대동 한마당', 새벽 0시부터 2시간 동안은 디제잉, 버스킹, 토론, 마당극으로 채워지는 심야 행사 '잡 맞드는 밤'도 펼쳐진다. 이와 발맞춰 중앙초 운동장에는 텐트 500여 개를 설치해 시민들이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사 장소도 기존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1~3가를 넘어 금남로4가, NC웨이브 앞, 중앙초 앞까지 확장된다. 금남로4가 사거리에는 4면이 뿔려 있는 주 무대가 설치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를 제외한 5·18부상자회와 유족회, 5·18 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는 행사위원장에 불참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늘막 펼칠 시간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등 본격적인 더위가 올 것을 대비해 17일 광주시 동구청 직원들이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의 작동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후쿠시마 원전 사고 14년...방사능물질 줄지 않았다"

### 환경단체, 日 모니터링 축소 비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일본 농수축산물에서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검출되는 비율은 여전히 국내 환경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4만 5413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세슘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4258건(9.4%)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농산물의 12.2%에서 세슘이 검출됐고, 가공식품(5.8%), 수산물(4.1%), 축산물(1.4%)이 뒤를 이었다. 야생육의 경우 그 비율이 23.6%로 높았다. 수산물의 경우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100Bq/kg)를 초과하는 식품이 없었지만 세슘 검출률은 4.1%로 지난 5년간의 평균값(5.3%)과 큰 차이는 없었다. 조피블락(40Bq/kg) 등 일부 해수 어는 최값이 높아졌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4년이 지났으나 최근 5년간 검출률에선 큰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로 오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주 1회 모니터링을 월 1회로 축소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공언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전국 모든 터널 붕괴 예방조치·긴급 점검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말까지 전국의 모든 터널 건설 현장의 붕괴 예방조치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지난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터널 붕괴 사고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전국의 207개

소 터널 건설 현장에 대해 5월 말까지 붕괴 예방 조치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터널 지지 부재의 설치 상태 ▲붕괴 징후에 대한 확인 절차 ▲낙반이나 인화성 가스 대비 조치 ▲지하층 굴착 시 예견되는 위험·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등이다.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를 통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전남대학교병원이 '뉴 스마트병원'으로 도약합니다

## New Smart Hospital

전남대학교병원은 융복합 디지털 의료시스템을 갖춘 세계 최고의 의료거점으로 성장할 새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래의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새병원 건립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사업기간 2024~2034년)  
2030년 동관 준공 및 개원 예정 / 2034년 서관 준공 및 개원 예정

